동의신경정신과 학회지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Vol. 20. No. 1, 2009

내재된 기본 감정으로서의 七情에 관한 초보적 연구

정종효, 최금애, 김경수*, 김경옥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동신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 *

The Primary Study on Chiljung of Inherent Basic Emotion

Jong-Hyo Jung, Geum-Ae Choi, Kyung-Su Kim*, Kyeong-Ok Kim
Dept. of Neurophychiatry, Collea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Dept. of physical therapeutics, Colleage of Health and Welfare, Dongshin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
One's mind turned over by environment and personal relationship is Emotion. Emotion is composed by several basic feelings. This basic feeling is called Chiljung in Oriental Medicine. This study is confirmed difference of Chiljung by Constitution.

Methods :
80 persons of Oriental medicine university students were tested by Qu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QSCCII) and Thematic Apperception Test(TAT). Constitution is distinguished by QSCCⅡ. 11 pieces picture of TAT were showed one minute and then had person to discribe one's feelings. Two data were analyzed by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
Result is as follows, tested TAT about expression of inherent basic emotion.
1. It has relations with cognitive thought process
2. Expression of Chiljung has some relations with constitution and personal trait.
Conclusion : Chiljung of inherent basic emotion is cognitive and has difference between constitutions by TAT.

Key Words :
Chiljung, Qu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QSCCII), Thematic Apperception Test(TAT), Inherent Basic Emotion

투고일 : 2/12 수정일 : 3/4 채택일 : 3/8
교신저자 : 김경옥, 전남 순천시 조례동 1722-9, 동신대학교 순천한방병원 신경정신과학교실
Tel : 061-729-7166, E-mail : avecinok@hanmail.net

Ⅰ. 서 론

인간을 일컬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할 만큼 감정은 인간 특유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동물적인 본능으로서의 감정은 신체적 흥분상태을 수반하여 우리의 건강, 사고 및 여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감정은 느낌이나 표정으로 알 수 있기도 하고, 다양한 어휘를 통해 표출되기도 하는데, 인간의 행동이나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1]. 이는 감정에 정서의 인지적 해석을 포함하는 사고의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2].

情志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원화된 인간의 느낌으로[3] 마음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정서를 말한다. 인체가 환경이나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마음의 움직임은 제각기 다른 다양한 어휘로써 표현된다. 이런 어휘는 몇 가지 기본 정서를 기초에 둔 千萬種의 정서적 변화를 다양한 복합형식으로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이다[4,5].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 중 더 본질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구별하여 기본 감정의 범주를 설정하였는데, 이런 기본 감정은 문화권과 학자에 따라 다르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sadness, joy/happiness, anger, disgust/hate, desire/love, fear"로 보거나, 현재의 어떤 心理學家에서는 "喜悅, 憤怒, 恐懼, 悲哀"로 개괄하기도 하였다[4,6]. 동양의 고전에서는 "喜怒哀樂" 또는 "喜怒哀樂愛惡慾"으로 개괄하며, 韓醫學에서는 喜•怒•憂•思•悲•恐•驚이라는 七情으로 칭하였고, 四象醫學에서는 "喜怒哀樂"으로 보았다[7].

한의학에서 七情은 인체의 정상적인 정서 표현으로 정신활동의 구체적 표현이며, 그 변화는 상이한 사물이나 환경의 영향에 대한 시시각각으로 활동 변화된 사람의 정지로 정신 활동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한다. 그러므로 情志가 갑자기 과도하게 되거나 정신적인 자극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때 정신활동의 정상적인 리듬을 잃게 되고 인체의 氣機는 문란해져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야기하게 된다[8]. 따라서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신체적 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기본 감정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감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감정(Emotion)과 정서(Affect)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거나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2], 본 연구는 혼용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정서 의 측정은 표출의 장애나 특정한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는 연구를 통해 시도되어 보고되고 있으나[9-11] 일상에서 나타나는 즉 개인에게 내재된 기본 감정의 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보고는 없다.

한의학에서의 기본 감정 즉 七情에 관한 연구는 情志의 생리병리에 대한 고찰, 장부와의 상관성, stress와 연관성 및 문헌적 고찰이 대부분으로 七情을 측정하고나 하는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이에 저자는 한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상체질에 따른 주제통각검사(TAT)에 내포된 기본 감정으로서의 七情을 살펴보고,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한방신경정신과학과 사상의학을 동시에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9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Qu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이하 QSCCII)와 Thematic Apperception Test(이하 TAT)를 실시하였는데, QSCCII에서 체질이 감별되는 80명을 통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I).

Table I.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General Characteristics		Sasang constitution	Frequency	Percent (%)
Sex	Male	Taeyangin	1	1.25
		Soyangin	13	16.25
		Soeumin	31	38.75
		Tae-eumin	18	22.50
	Female	Taeyangin	0	0.00
		Soyangin	2	2.50
		Soeumin	11	13.75
		Tae-eumin	4	5.00
	Total		80	100.00
Age	20s	Taeyangin	1	1.25
		Soyangin	10	12.50
		Soeumin	31	38.75
		Tae-eumin	21	26.25
	30s	Taeyangin	0	0.00
		Soyangin	4	5.00
		Soeumin	9	11.25
		Tae-eumin	1	1.25
	40s	Taeyangin	0	0.00
		Soyangin	1	1.25
		Soeumin	2	2.50
		Tae-eumin	0	0.00
	Total		80	100.00

2. 연구방법

1) 사상체질 분석

사상체질분류검사(QSCCII)는 객관적인 사상체질 진단을 위한 PC용 Program으로 체질진단의 높은 정확률과 타당성이 입증되어 객관화된 진단지표를 제공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지를 이용하여 가장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을 검사자의 체질로 정의, 분류하였다.

2) 칠정 분석

한방신경정신과학의 七情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가이던스의 주제통각검사(TAT) 도판 중 전체와 성인과 관련된 것 즉 도판 1, 2, 4, 5, 10, 11, 13MF, 14, 15, 19, 20의 총 11장을 각각 1분간 보여준 후 느끼는 감정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 내용을 전[12]과 박[13]의 도판 설명내용과 嚴[7]의 내용에 근거하여 심정이 유쾌한 표현의 내용은 "喜", 욕망의 미달성이나 억압으로 인한 내용은 "怒", 정신을 집중하거나 煩惱 또는 깊게 생각하는 내용이면 "思"로, 情志沈鬱의 상태나 내용은 '憂', 哀想, 苦痛에 의하여 생겨나는 슬픈 내용은 "悲", 정신상에 나타나는 갑작스런 긴장의 내용은 "驚", 두려움이나 공포감과 움찔하게 되는 느낌이나 내용은 "恐"으로 분류하였다.

3. 통계 분석

QSCCII와 TAT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는 SPSS Windows 14.0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성별, 연령별, 체질 등 일반적 사항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상체질과 감정과의 관계는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과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Ⅲ. 결 과

1. 그림 #1

한 소년이 그 앞의 책상에 놓인 바이올린을 응시하고 있는 그림으로 모두에게 사용되는 도판이다.

전[14]의 연구에서는 남녀 응답자의 대부분(233/554명)이 '부모의 강요 또는 실력부족으로 인한 고민'의 내용이라고 답하였다.

太陰人에서는 憂의 감정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思의 감정이 나타났으며, 그 외 소수가 怒, 悲, 恐, 驚의 감정으로 답하였다. 少陰人은 憂의 감정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思의 감정이 나타났으며, 그 외 감정은 소수가 답하였다. 少陽人은 憂의 감정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외 소수가 思, 悲, 恐, 驚의 감정으로 답하였다(Fig. 1).

이상에서 憂의 감정이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에게서 모두 우세하였으므로, 그림 #1은 憂가 대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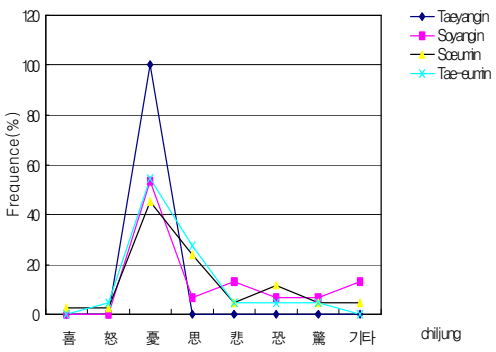


Fig. 1. Comparison of Chiljung on TAT picture No.1 between constitution.

2. 그림 #2

前面에는 책을 손에 든 젊은 여인이 있고, 背景에는 한 남자가 들에서 일하고 있고, 늙은 부인이 쳐다보고 있는 시골 풍경으로 모두에게 사용되는 도판이다.

전[14]의 연구에서는 남녀 응답자의 대부분이 특정한 내용보다 다양하게 답하였다.

太陰人은 喜의 감정과 憂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소수가 思와 恐의 감정으로 답하였다. 少陰人은 憂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은 怒와 思의 감정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소수가 喜, 悲, 恐, 驚의 감정에 답하였다. 少陽人은 憂의 감정이 높게 나타났고, 소수가 喜, 怒, 思, 恐의 감정으로 답하였다(Fig. 2).

이상에서 그림 #2는 체질에 따른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少陰人에서만 悲와 驚의 감정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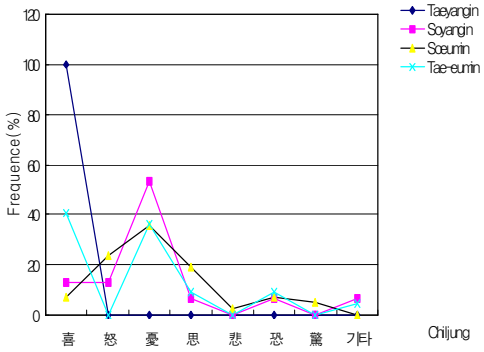


Fig. 2. Comparison of Chiljung on TAT picture No.2 between constitution.

3. 그림 #4

한 여인이 그녀로부터 떨어지려는 듯이 얼굴과 몸을 돌리고 있는 한 남자의 어깨를 붙잡고 있는 그림으로 모두에게 사용되는 도판이다.

전[14]의 연구에서는 남녀 응답자의 대다수(324/650명)가 '남자의 분노(복수, 방탕), 아내의 만류'의 내용으로 답하였다.

太陰人은 恐의 감정을 제외한 모든 감정이 나타났는데, 憂와 思에 비해 悲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少陰人은 悲의 감정이 우세하고 그 다음으로 憂와 思의 감정이 나타났으며, 소수가 喜, 悲 恐, 驚의 감정에 답하였다. 少陽人에서는 悲의 감정이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고, 소수가 憂, 思, 恐의 감정에 답하였다(Fig. 3).

이상은 전[14]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少陰人과 少陽人에게서는 悲가 대표 감정이라

고 할 수 있으나, 太陰人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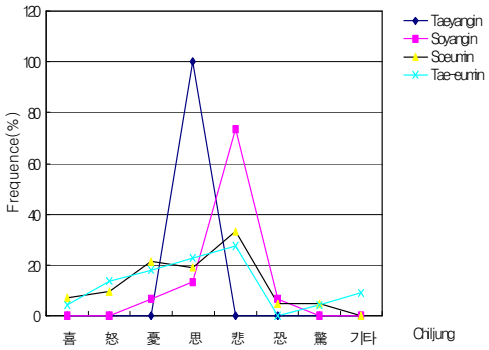


Fig. 3. Comparison of Chiljung on TAT picture No.4 between constitution.

4. 그림 #5

중년부인이 반쯤 열린 문으로 방을 들여다보며 문지방에 서 있는 그림으로 모두에게 사용되는 도판이다.

太陰人은 思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 憂, 怒, 悲의 감정으로 나타났으며, 소수가 喜, 怒, 恐, 驚의 감정에 답하였다. 少陰人은 思의 감정이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怒와 憂의 감정이 우세하였으며, 소수에게서 喜, 悲, 恐, 驚의 감정이 나타났다. 少陽人은 思의 감정이 매우 우세하였으며, 悲를 제외한 감정이 소수에게서 나타났다(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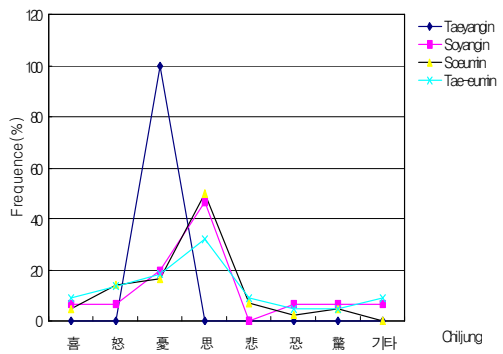


Fig. 4. Comparison of Chiljung on TAT picture No.5 between constitution.

이상에서 少陰人과 少陽人에게는 思가 대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太陰人은 憂가 우세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5. 그림 #10

젊은 여인이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그림으로 모두에게 사용되는 도판이다.

太陰人은 喜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 悲와 思의 감정이었으며, 소수에서 憂와 恐의 감정이 나타났다. 少陰人은 喜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 思와 憂의 감정이었으며, 소수에서 怒, 悲, 恐, 驚의 감정이 나타났다. 少陽人은 喜의 감정이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고, 소수에서 思, 悲, 驚의 감정이 나타났다(Fig. 5).

이상에서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에게 喜가 대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怒, 憂, 驚이 체질에 따라 특이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일반화하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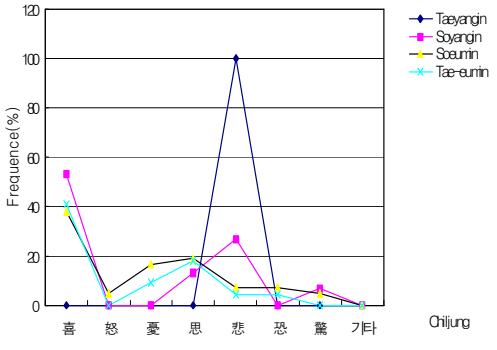


Fig. 5. Comparison of Chiljung on TAT picture No.10 between constitution.

6. 그림 #11

높은 절벽 사이의 깊은 틈이 있으며, 멀리 길 위에 모호한 것이 있고 한 편의 바위벽으로부터 용의 긴 머리와 목이 나와 있는 그림으로 모두에게 사용되는 도판이다.

太陰人은 憂와 思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恐을 제외한 감정이 소수에게서 나타났다. 少陰人은 思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 喜와 憂의 감정이 나타났으며, 怒, 悲, 恐, 驚의 감정이 소수에게 나타났다. 少陽人은 思와 喜의 감정에 우세하게 나타났고, 怒, 悲, 驚을 제외한 감정이 소수에게 나타났다(Fig. 6).

이상에서 그림 #11은 思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나나 대표 감정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怒, 悲, 恐, 驚이 체질에 따라 특이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일반화하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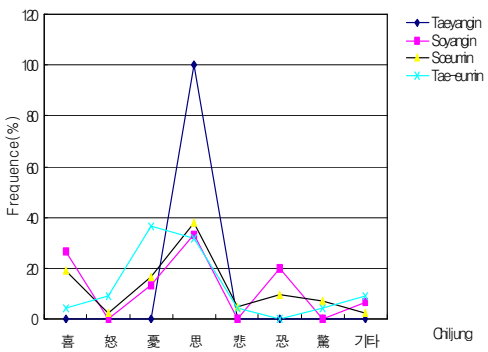


Fig. 6. Comparison of Chiljung on TAT picture No.11 between constitution.

7. 그림 #13MF

한 젊은 남자가 손으로 감싸 쥔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서 있고, 남자 뒤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자가 있는 그림으로 성인 남녀에게 사용하는 도판이다.

전[14]의 연구에서는 '아내의 임종, 슬픔, 낙심'이라는 내용(132/689명)과 '창녀와 동침 후 후회, 실망'이라는 내용(107/689명)이 많았다.

太陰人은 悲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驚과 思의 감정이 그 다음이었으며, 怒와 憂는 소수에게 나타났다. 少陰人은 悲와 憂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 恐, 思, 驚의 감정이 나타났다. 少陽人은 怒를 제외한 다양한 감정이 비슷하게 나타났다(Fig. 7).

이상에서 그림 #13MF는 太陰人과 少陰人은 悲가 대표 감정이라 할 수 있으며, 전[14]의 연구와 비슷하다. 또한 喜, 怒, 恐은 체질에 따라 특이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일반화하기에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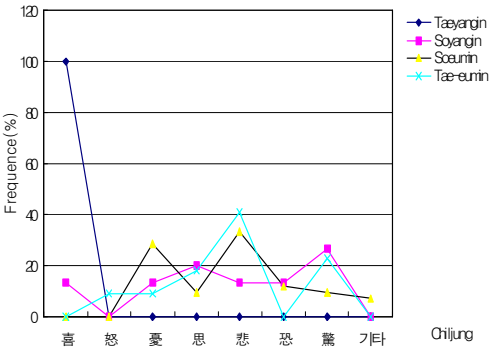


Fig. 7. Comparison of Chiljung on TAT picture No.13MF between constitution.

8. 그림 #14

밝은 창가에 사람의 있는 실루엣으로 나머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은 그림으로 모두에게 사용되는 도판이다.

太陰人은 喜의 감정이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고, 思와 驚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이 소수에게서 나타났다. 少陰人은 喜의 감정이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고, 憂와 恐, 驚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이 소수에게서 나타났다. 少陽人은 喜의 감정이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고, 怒, 憂, 恐, 驚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이 소수에서 나타났다(Fig. 8).

이상에서 그림 #14는 喜가 대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怒와 憂는 체질에 따른 특이성

을 보이고 있고, 恐과 驚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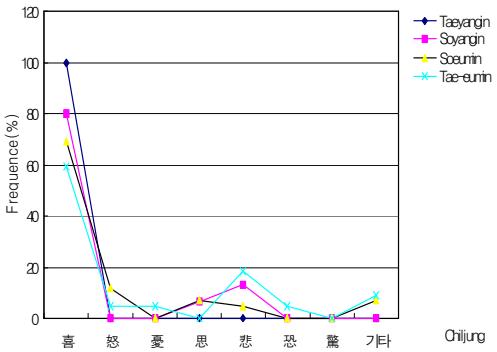


Fig. 8. Comparison of Chiljung on TAT picture No.14 between constitution.

9. 그림 #15

손을 꽉 쥔 여윈 남자가 비석들 가운데 서 있는 그림으로 모두에게 사용하는 도판이다.

太陰人은 怒와 憂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 思와 悲의 감정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驚의 감정이 소수에게 나타났다. 少陰人은 怒와 憂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 思의 감정이 나타났으며, 喜, 悲, 恐, 驚은 소수에게 나타났다. 少陽人은 怒가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 喜, 憂, 思의 감정이 나타났으며, 悲는 소수에게 나타났다(Fig.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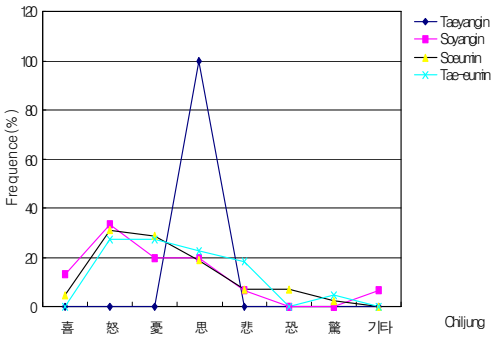


Fig. 9. Comparison of Chiljung on TAT picture No.15 between constitution.

이상에서 그림 #15는 체질에 따라 독특하게 반응하고 있고, 체질 내에서도 개별적인 편차가 있어 기본 감정을 평가하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그림 #19

시골의 눈 덮힌 오막살이 위에 걸쳐 있는 구름 모양의 이상한 그림으로 모두에게 사용되는 도판이다.

太陰人은 憙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 怒와 悲의 감정이 나타났으며, 그 외 감정은 소수에게서 나타났다. 少陰人은 喜와 怒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외 감정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少陽人은 怒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憙의 감정이 나타났으며, 그 외 감정은 소수에게서 나타났다.(Fig. 10).

이상에서 그림 #19는 체질에 따라 독특하게 반응하고 있고, 체질 내에서도 개별적인 편차가 있어 기본 감정을 평가하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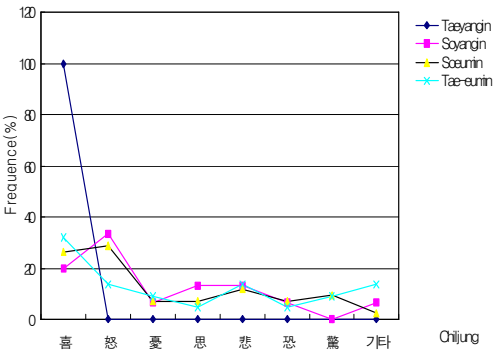


Fig. 10. Comparison of Chiljung on TAT picture No.19 between constitution.

11. 그림 #20

깊은 밤에 가로등에 기대어 서 있는 희미하게 조명을 받는 모자 쓴 사람의 그림으로 모두에게 사용되는 도판이다. 太陰人은 思의 감정이 매우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憂와 恐의 감정이 나타났다. 少陰人은 思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그 외 감정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少陽人은 熹와 思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怒, 憂, 悲, 恐의 감정이 소수에게서 나타났다(Fig. 11). 이상에서 그림 #20은 太陰人과 少陰人에게서는 思가 대표 감정이 될 수 있으나, 少陽人은 대표 감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喜, 怒, 悲, 驚의 감정은 체질에 따라 독특한 반응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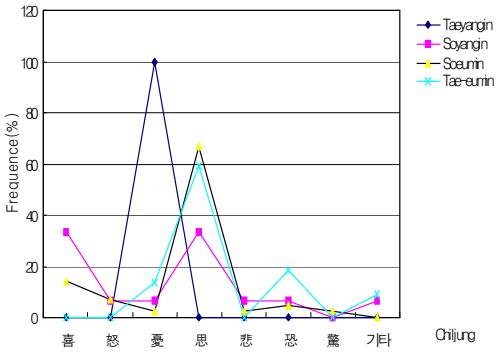


Fig. 11. Comparison of Chiljung on TAT picture No.20 between constitution.

12. 체질과 우세감정

각 체질에서 빈도가 35%이상이며, 그 차이가 10%이상 되는 경우를 우세감정이라고 할 때, 각 체질에 따른 특성이다(Table II).

그림 #1, #2, #10, #14는 체질과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4, #5, #13MF, #16, #20은 체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TAT에 대해 느끼는 기본 감정에 있어서는 少陰人이 체질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太陰人은 개체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Table II. Comparison of Predominant Emotion between Constitution

	Taeyangin	Soyangin	Soeumin	Tae-eumin
喜	#2, #13MF #14, #19	#10, #14	#10, #14	#2, #10, #14
怒	-	-	-	-
우	#1, #5	#1, #2	#1, #2	#1, #2
思	#4, #11, #15	#5	#5, #16, #20	
悲	#10	#4	#4	#13MF
恐	-	-	-	-
驚	-	-	-	-

: TAT Picture No.

Ⅳ. 고 찰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한다. 인간의 정신적인 면을 감정과 이성으로 나누고 감정은 동물적인 본능의 범주로 이해하고 이성은 이치에 따라 실천하려는 것으로 인간의 지향할 바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감정(emotion)은 인간 특유의 속성으로 본질적으로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6].

우리가 感覺이라는 것에 있어서의 感은 인지적 수준의 언어 표현으로 함께하다는 뜻이 있으며 둘이 아니라는 것으로 마음을 하나로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마음이 곧 情으로 표현되어 질 수 있으며, 이 情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배움이 없이도 행할 수 있는 선천적인 것이며, 만물에 존재하는 것이다[15].

情이란 사물에 감촉되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으로 性情이라 보통 일컬으며, 『禮記』에는 "喜怒哀懼愛惡慾 七者不學而能"이라 하여 선천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性이란 사

람의 성품 또는 만물의 본성으로 이해되는데 사람이 타고난 성질, 만물이 가지고 있는 본바탕이라 한다[16].

이런 마음의 작용은 외부세계에 대한 心神의 반응으로 마음의 움직임에 대한 느낌은 情志라고 할 수 있으며, 대단히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나타난다[3,5]. 이런 情志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정서에 기초를 두고 외부상황이나 내재적 심리상태를 반영하여 나타나는데, 이런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서는 철학과 의학을 망라한 동양의 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다. 孔子는 "喜 ,怒, 哀, 懼, 愛, 惡, 慾"의 七情을 , 老子는 "喜, 怒, 憂, 悲 好, 憎 慾"의 七情을, 荀子는 "好, 惡, 喜, 怒, 哀, 樂"의 六情을, 『左傳』에서는 "好, 惡, 喜, 怒, 哀, 樂"의 六志를, 『呂氏春秋』에서는 "喜, 怒, 憂, 恐, 哀"의 五志를 말하였으며, 佛家에서는 "喜, 怒, 憂, 懼, 愛, 憎, 慾"의 七情이라고 하였다[8].

한의학에서는 "喜怒憂思悲恐驚"을 七情이라고 하였다. 원래 『內經』에서는 情緖를 "怒喜思憂恐"으로 구분하였고, 五臟이 주도하여 "五臟情志"라 하며 簡稱하여 '五志'라 하였고, 또 '九氣'라 하여 情志가 氣機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였다. 이후 『內經』의 五志說과 九氣說은 후세 의가들이 情志病變과 辨證論治를 연구하는데 이론기초를 세웠다[15]. 이후 宋代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喜怒憂思悲恐驚의 7가지 情志를 명확하게 '七情'이라고 하였다[7].

四象醫學에서는 "喜怒哀樂"을 기본 감정으로 보았다. 七情의 4가지 요소이나, 七情과 다른 점은 사람마다의 心理發現에 있어서의 편차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인적 특성에 따른 優越機能으로 直觀이 강한 太陽人은 哀性이, 感情이 강한 少陽人은 怒性이, 感覺이 강한 太陰人은 喜性이, 思考가 강한 少陰人은 樂性이 더 잘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18].

감정이란 외계에 대한 인식이므로 주관과 객관, 인식이라는 잣대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 동양학에서는 인식너머에 실존적 존재가 있으며 이것은 사람의 인식이나 인성으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본다[15].

감정에 대한 과학적 탐색은 철학, 심리학, 생리학 및 의학 등의 분야에서 한 세기 이상의 독자적 연구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감정의 이론은 생리적 이론과 인지적 이론이 있다. 감정의 생리적 이론은 19세기 후반 미국의 심리학지 제임스와 덴마크의 생리학자 랑게의 의해 주장된 James-Lange 이론과 1920년대 캐논과 바드에 의해 주장된 Cannon-Bard 이론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감정유발자극에 의해 감정과 생리적 반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지만 모두 감정유발자극에 의해 생리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감정의 인지적 이론은 자극 후에 생리적 각성이 생기고 인지적 해석을 통해 감정으로 인지한다는 Schachter-Singer 이론과 생리적 각성없이 인지적 해석을 중심으로 감정을 결정한다는 Lazarus 이론이 있다[6].

또한 감정의 생리적 특성으로는 Ekman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정마다 특정한 양상으로 자율신경계가 반응한다[19]. 그러나 현재는 다양한 감정에 따른 특정한 생리적 반응의 특성을 밝히지 못한 상태이다.

감정은 정서의 인지적 해석을 포함하는 사고의 측면이 있다[2]. 즉 감정의 생성은 어떤 동기나 자극이 있어야 발생하게 되고, 어떠한 공통분모가 존재하는데, 이 공통분모는 동물에게도 존재하는 생명체의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식의 구체적인 반응양태와 강도는 인간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하며, 이는 주관적인 요소이다.

인간이 감정은 몇 가지 기본 정서를 기초에 두고 다양한 정서적 변화를 형성할 수 있고,

다양한 복합형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 기본 정서를 한의학에서는 "喜怒憂思悲恐驚"을 七情이라고 하였다.

『內經』이나 『三因方』에서는 七情의 병리적 변화에 대해 주안점이 되어 있어 각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미약하다. 따라서 저자는 嚴의 구분[7]을 참조하였는데, 嚴은 喜를 "快活明朗한 정신활동으로 心情이 愉快한 표현이다."고 하였고, 怒를 "慾望이 達成되지 못하고 抑壓을 받음으로 衝動的 興奮으로 發하는 情緖"라 하였으며, 憂는 "情志沈鬱의 상태로서 悲와 思의 중간형"으로, 思는 "정신을 集中하고서 어떤 문제를 생각하는 표현"이라고 하였고, 悲는 "哀喪, 煩惱, 苦痛에 의하여 생겨나는 슬픈 감정으로 進退의 性은 없고 깔아지는 성질이 있다."고 하였으며, 恐는 "恐怖心의 표현으로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心氣가 下落하는 뜻"으로 보았으며, 驚은 "不意의 非常事態에 직면하여 정신상에 갑작스럽게 나타는 것"이라고 하였다[7].

이상의 칠정에 대한 연구는 김[20]이 정지의 생리병리에 대한 고찰과 박 등[8]이 칠정과 암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손[21]이 脾胃와 神志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박 등[22]은 비위와 칠정의 상관성을 고찰하였고, 엄[7]이 스트레스와의 이론적 고찰을, 문[23] 외 다수가 스트레스와 관계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하였다.

또한 감정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표출감정[9]이나 감정표현 불능증에서의 감정측정[10]의 연구와 감정 및 정서상태의 이해를 통한 측정평가[11] 등이 있으나, 한의학의 七情과 관련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TAT는 Rorschach, Draw-a-Person과 더불어 임상에서 많이 쓰이는 투사적 심리검사방법이다. 1935년 Morgan과 Murray에 의해 소개된 심리검사방법으로 대인 관계와 환경에 대한 통각이나 의미있는 해석을 나타내는 성격의 역동을 알아보기 행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이후에 전[12] 등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전은 주인공, 환경, 중요한 갈등 등에 맞추어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TAT는 31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별과 나이에 따라 20장을 선택하여 사용하나, 실무에서 필요에 따라 10장 정도를 사용하기도 한다[14].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나 환경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이 마음의 느낌과 연관되고 정지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1장의 그림을 박[13]이 제시한 실시방법 중 하나인 집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12]과 박[13]의 내용분석에 근거하여 칠정으로 분류하였고 사상체질의 편차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각 그림에서 모든 체질에서 다양한 감정이 나타났으나, 교차분석에서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1, 그림 #10, 그림 #14에서는 체질과 상관없이 같은 감정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림 #4는 少陽人에서 하나의 감정(悲)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少陰人과 太陰人은 여러 가지 감정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림 #13은 太陰人에서 하나의 감정(悲)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少陽人과 少陰人은 여러 감정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림 #2와 #5는 少陽人과 少陰人에서 하나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太陰人은 두 세 가지 감정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림 #11, #15, #19, #20에서는 하나의 감정이 우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림에 따라 우세한 한 두 개의 감정이 나타나거나 혹은 다양한 감정이 분포하는 것, 전혀 반응하지 않는 감정이 있다는 것은 인지적 사고 작용에 의해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七情이 정서의 인지적 해석을 포함하는 사고의 과정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체질에 따라 우세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四象體質에 따른 비슷하게 인지하는 경향으로 인해 감정적 편차가 있음을 의미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같은 체질 내에서도 다양한 감정이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적 특성 역시 감정 발현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七情의 범주에 대한 인식이 부정확하고, 감정 발현에 대한 기전의 연구가 미비하며, QSCCII의 신뢰도의 영향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사상체질에 따른 감정의 발현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한방신경정신과학의 칠정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한의과대학 80명에게 QSCCII와 TAT를 실시하여 내재된 기본 감정으로서의 칠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七情은 인지적 사고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기본 감정이다.

2. 七情의 발현에는 체질적 경향과 개인적 특성이 관여한다.

이상에서 TAT에 의해 내재된 기본 감정으로서의 칠정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체질적 경향과 개인적 특성의 관여 정도 및 七情의 범주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안신호, 빈성혜. 감정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정보로서의 감정' 모형과 판단수정 모형. 한국심리학회지:사회와 성격. 2000;14(1):65-89.
2. 박면웅, 안승민, 하성도, 정도언, 류인균. 감정 및 정서상태 전이를 위한 감성 컨텐츠 추천 시스템 개발. 감성과학. 2007;10(1):1-11.
3. 엄태식. 七情傷에 대한 小考. 대한한의학회지. 1984;5(1):145.
4. 王克權. 中醫神主學說. 서울:의성당. 1997:5.
5. 文濬典, 安圭錫, 崔昇勳 공편. 東醫病理學. 서울:高文社. 1993:59.
6. 임지룡. 감정의 생리적 반응에 대한 언어화 양상. 담화와 인지. 1999;6(2):89-117.
7. 嚴賢燮. 情緖(七情)와 Stress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 동서의학. 1994;17(4):5-10.
8. 朴炳俊, 金聖勳. 七情과 癌의 相關性에 對한 東西醫學的 考察.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1999;8(1):223-43.
9. 김상남, 이경희. 표출감정(Expressed Enotion) 개념을 다룬 연구논문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2000;11(2):236-48.
10. 오상미, 이홍범, 이용철, 이양근, 정애자. 천식 환자에서의 감정표현불능증. 천식 및 알레르기. 1998;18(3):434-40.
11. 이구형. 감성과 감정의 이해를 통한 감성의 체계적 측정 평가. 한국감성과학회지. 1998; 1(1):113-22.
12. 전용신. TAT 검사법. 서울:문천사. 1973:1-47.
13. 박경. 주제통각검사.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대학생활연구. 2001;19:93-119.
14. 전용신. 정상인이 본 TAT 그림.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행동과학연구. 1979;4(3):27-44
15. 송호철, 김동희, 김성훈. 칠정의 생성에 대한 동서의학적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0;9(1):183-92.

16. 漢韓大字典. 서울:민중서림. 1993:484, 494.
17. 王米渠 編. 中醫心理學. 香港: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5:86.
18. 김도순. 東醫心學 原理論.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1997;8(1):6.
19. P Ekman, RW Levenson, WV Friesen. Autonomic nervous activity distinguishes among emotions. Science. 1983;221(4616):1208-10.
20. 金基永. 정지의 생리병리적 고찰. 원광한의대논문집 1984;2(1):121.
21. 孫迎節. 脾胃與神志的生理病理關係探錫. 療寧中醫學雜誌. 1988:1-3.
22. 朴淑英 외. 脾胃와 七情에 관한 文獻的 考察. 대한한의학회지. 1976;13(1):140.
23. 文流模. stress에 대한 東西醫學的 考察. 대전대학논문집. 1987;4(2):301-5.